

# 군부대마다 도서관을

제자 한 명이 연구실로 나를 찾아와 대뜸 물었습니다. “교수님 왜 꼭 군대에 가야 합니까? 군대에 안 갈 수는 없습니까?” “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지?” “군대에서 썩는 시간이 아까워서요. 또 군대가면 단순 무식해 진다고 하던데요.” 꽤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. 또한 군복무 기간을 단절과 소모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과연 그들의 가치관에, 애국심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

과연 우리 군은 군대 생활을 소모의 시간이나 고역이 아니라 보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? 군대에서 전문지식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을까요? 장병들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수용해 주고 있을까요?

## 군 독서환경 열악

장병들의 지식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한 진중문고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군의 독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. 2002년도 국방비는 16조 3,640억 원으로 정부 예산 105조 8767억 원 가운데 15.5%를 차지할 만큼 큰 액수입니다. 이 가운데 진중문고 예산은 10억 원으로 0.006%에 불과합니다.

이는 간식으로 먹는 연간 과일비 예산 약 333억 원, 우유비 449억 원에 비해서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액수입니다.

진중문고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 종수는 겨우 21종에 불과합니다. 1종당 구입 권수는 약 1만2,000권입니다. 군 장병을 위한 실질적인 독서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.

61만 9,000명에 이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, 그야말로 지식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군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독서진흥정책을 펼쳐야 할 곳입니다. 군사지식과 체력단련만이 아니라 각종 전문지식과 사회적응력, 창의력을 키워 주어야 할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.

이제 정부는 국방의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. 우리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정부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.

군 장병들이 어디에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인식으로 군 복무기간을 헛되이 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는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## 지식인프라 구축 전진기지를

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이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시대입니다. 이제 군도 이러한 변화에 걸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. 그 첫 번째가 부대마다 독서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을 설립하고



실질적인 도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.

진중도서관은 군 장병들에게 독서의 동기와 기회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지식, 문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즉, 군 복무기간이 단절과 소모의 시간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사회적응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.

이제 정부는 군을 지식 인프라 구축의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는 국방정책을 수립·집행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먼저 현재 진중문고의 예산을 국방비의 0.009%에 해당하는 150억 원으로 늘리고 점차 우유 지급비에 해당하는 500억 원 정도로 늘려 실질적인 독서진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.

또한 군 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도록 군 장병을 위한 실질적인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. 아울러 매주 혹은 격주로라도 '진중 특강' 등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 원로들의 강연을 통해 진정한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.

진정한 부국강병은 성능이 뛰어난 무기도 있어야 하지만 역량 있는 인재, 즉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갖춘 인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남북회담에서 비행기 몇 대, 탱크 몇 대 덜 사기가 우선적으로 논의, 합의되어 그 예산으로 군부대마다 진중도서관이 만들

어지고 군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, 다른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라도 진중도서관 건립 예산과 실질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용 예산은 확보되어야 합니다.

저는 비행기 한 대 덜 샀다고 해서 결코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확신합니다. 아스팔트길 10킬로미터 덜 낸다고 결코 대한민국의 발전이 더디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.

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군 독서환경을 만드는 일은 부모형제가, 친구가 군에 있는 아들에게, 친구에게 꼭 필요한 책 한 권을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책읽기를 통해 진정한 부국강병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이 감미로운 봄날에, 전쟁도 접고, 책을 읽으며 한껏 웃는 장병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. 책 읽는 풍경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군대를 꿈꾸어 봅니다.

김재운 · 본지 객원기자

진중도서관건립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· 탐라대학교 출판미디어학과 교수